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9호> 2018년 10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11월 3일부터 내년 4월까지 세계 규모의 꽃 박람회 ‘타이중 플로럴 세계 박람회’가 대만에서 개최됩니다. 오이타현은 왕대나무의 생산량이 전국 1위이며, 풍부한 대나무를 재료로 만든 죽공예의 역사도 깊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현내 작가들이 참여한 대나무 공예품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박람회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오이타현의 전시 부스에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이타현 소식>

한일 고교생 문화 교류 실시

오이타현교육위원회와 대한민국 충청남도교육청은 1997년에 교육,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우호 교류선언을 통해 매년 상호로 학생을 파견하며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이타미나미고등학교의 학생 12명이 한국의 대산 고등학교 학생들과 ‘취주악’을 통한 문화 교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류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었으며, 학생들은 대산 고등학교 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교류 첫 날, 작년에 이미 교류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LG화학을 견학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고, 합동 연주를 위한 리허설을 하며 친해진 학생들은 교류 마지막 날, 연주회에서 멋진 합연을 보여주었고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도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제스처와 번역 어플 등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SNS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우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류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기며 성장해나가길 바랍니다.

【교육청 문화과】

현내 이벤트 정보 ‘오이타 3대 대나무 등불 축제’

역사 깊은 거리에 2만개의 대나무 등롱과 다양한 오브제의 빛이 이어지며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스키시의 ‘우스키 타케요이’는 우스키 석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호족 마나노초자(眞名野長者)의 아름다운 딸의 유령이 수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밤길을 밝게 비추게 했다는 ‘마나노초자 전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히타시의 ‘센넨아카리’, 다케타시의 ‘다케타 치쿠라쿠’가 11월에 개최되며 ‘오이타 3대 대나무 등불 축제’로 오이타의 대표적인 가을 이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우스키 타케요이>
11/3(토) ~ 4(일)
우스키시 시내 중심가



<히타 센넨아카리>
11/9(금) ~ 11(일)
히타시 카게츠강 주변



<다케타 치쿠라쿠>
11/16(금) ~ 18(일)
다케타시 성하마을

문의 : 우스키타케요이실행위원회사무국

문의 : 히타시관광협회

문의 : 다케타시관광투어리즘협회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9호> 2018년 10월 발행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선교사 전호경



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호경이라고 합니다. 1999년도에 후쿠오카시 국제교류원으로 처음 일본에 오게되었고, 3년간의 국제교류원 생활을 마친 후 규슈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때 친구 소개로 교회를 다니다가 졸업 후 선교사가 되면서 오이타에 오게 되었습니다.

2. 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8년 전 오이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 중 한국인이 2/3,

일본인이 1/3 정도 됩니다. 오이타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APU, 일본문리대학의 유학생 친구들이 오거나 오이타에 거주하시는 한국 분도 와주십니다. 또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인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일본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평일에는 한국어 교실을 실시하기도 하고, 주일에는 예배가 끝난 후 한국 요리를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일본어로 진행되지만 설교를 한국어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일본어로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3. 국제교류원 생활이 현재 선교사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목적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원으로 일본에서 근무하며 일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때의 경험은 현재 교회에서 한국어 강좌 및 한국인과 일본인들간의 교류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 일본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현재 일본에는 일본인 목회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그 부족한 자리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일본인 교회를 돕거나 일본인 목사님의 후임자로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일본에서 선교사를 하시며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한국은 크리스천이 많지만 일본에서는 적은 편이라 예전에는 이런 종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점점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분들이 늘어나고 한국인과 교류하고 싶다면 교회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선교하기에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6. 오이타에서 추천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박해와 탄압으로 숨어지내며 신앙을 지켜온 ‘카쿠레 키리시탄’의 유적지가 많다는 것을 오이타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카쿠레 키리시탄하면 나가사키현이 유명하는데, 오이타현도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다케타를 중심으로 오이타현 각지에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고, 오이타시에도 키리시탄 순교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현내 곳곳에 남아있는 카쿠레 키리시탄 유적지를 찾아다녀보니 정말 인상 깊었고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와 이와 관련한 역사 공부를 해서 오이타를 찾아주시는 지인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7.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지금 교회는 2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주차장으로 쓰던 1층을 개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공민관처럼 늘 오픈해놓고 누구나 와서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